

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확정

-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누리호 제작 주관 및 참여 기업 총괄 관리 수행

-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이하 '항우연', 원장 이상률)은 한국형발사체(누리호) 체계종합기업으로 '한화에어로스페이스'를 확정하고 '22년 12월 1일(목)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.
- 항우연은 지난 10월 '한화에어로스페이스'를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, 최근까지 발사체 제작 총괄관리, 단 조립 공장 구축·이송, 발사체 및 구성품 시험, 발사운용, 품질 보증, 기술이전 등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왔으며, 최근 최종 합의에 이르러 그 결과를 제4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(11.22)에 보고하고 체계종합기업 선정 절차를 완료했다.
-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한국형발사체 제작(3기)을 주관하고 구성품 제작 참여기업에 대한 총괄관리를 수행하게 되며, 앞으로 4차례 예정된 누리호 발사('23,'25,'26,'27)에 참여하여 발사 운용 등 관련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.
 - ※ 기술이전 조건 등은 항우연·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상호 동의 없이 대·내외 공개 및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
-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「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」도 차질 없이 수행될 예정이다.
- 2023년 발사될 누리호 비행모델 3호기는 올해 12월까지 단별 조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체계종합기업 주관으로 전기체(ILV : Integrated Launch Vehicle) 조립이 진행될 예정이다. 끝.

□ 개 요

◆ (사업 목적) 한국형발사체의 반복발사 및 민간 기술이전을 통해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내 발사체 산업생태계 육성·발전

- (사업기간) 2022년 ~ 2027년(총 6년)
- (사업비) 총 6,873.8억원(국비 100%)
- (주관부처) 과기정통부
- (주관기관) 항우연, 한화에어로스페이스(체계종합기업)
- (주요내용) 정부위성 발사 수요에 따라 누리호를 반복 발사하고, 누리호 개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체계종합기업 발굴·육성
 - 실용 임무 위성의 반복적인 발사(4회)를 통한 발사 신뢰성 확보

구분	발사 일정	탑재 위성
3차 발사	2023년	차세대소형위성 2호
4차 발사	2025년	차세대중형위성 3호
5차 발사	2026년	초소형위성 2~6호
6차 발사	2027년	초소형위성 7~11호

- 효율적 기술이전 및 발사수요 제공을 통해 민간의 우주산업 참여를 도모하고, 자생력을 갖춘 발사체 산업생태계 조성
- (추진방향) 참여기업의 제작 역량 고도화 및 체계종합기업 육성
 - 한국형발사체 3기* 제작을 통해 제작 기술의 숙련도 향상 및 제작 공정의 효율화 추구
 - * 동 사업을 통해 한국형발사체를 제작하여 '25, '26, '27년에 발사('23년에 발사되는 한국형발사체는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에서 단별 조립 완료)
 - 체계종합기업 대상 한국형발사체 설계 노하우 등 기술 이전 추진